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0월 19일 (제76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겉보다 속

미(美)의 추구는 인간의 본능이자 권리다. 아름다워지려는 마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도 관여하고 제어할 수 없다. 화장틀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소득을 백퍼센트로 치고 화장품을 사는데 들이는 돈의 비율을 뜻하는 것인데, 이 화장틀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 치장하는데 과하게 쓴다는 뜻이다. 예전에 외국에서 온 손님이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내게 “다들 예쁘네요.” 했을 때, 내가 그걸 칭찬으로 받지 못한 까닭이 여기 있으리라.

그렇다면 과연 아름답게 꾸민 사람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아름다울까? 다들 느끼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외모치장에 비해 내면치장은 그다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굴화장은 잘 하는데, 마음의 화장을 안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선물로 들어온 사과가 아주 빠알간 게 예쁘기도 하고 포장마저도 멋지기로 맛 또한기가 막힐 것이라 생각해서 한 입 덩석 베어 물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푸석한 것이 정말 맛이 없었다. 못 생겨도 맛이 있어야 과일 아닌가. 사람도 이와 같다. 속이 맛이 있어야 한다. 속이 맛있으면 겉치장 거창하게 안 해도 벌써 풍겨져 나온다. 사과 맛이 향으로 나타났듯 말이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 23:27-28).

예전 유행가에도 ‘마음이 고와야 여지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라고 했다. 마음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니 마음의 화장에 신경 쓰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마음의 화장을 하자.

평화통일의 대역사를 향하여

현재 남북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에 무엇 하나 신뢰할만한 정보도 없고, 그저 이럴 때는 그들의 평화공세나 예측불허의 국지전 상황 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원칙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은 독일이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룬 날이다. 올해로 통일 24주년이라 한다. 참 부럽기도 하고, 분단 70년이 되어가는 우리는 언제나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는 지난해부터 부천, 잠실, 그리고 올해 서울시청광장의 평화통일 기도성회

부터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월요 평화기도회가 1989년 10월에는 대규모 촛불시위로 확산되었다. 그러자 당시 동독의 호네커 정권은 이러한 자유화 물결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려 했다. 유혈사태는 불을 보듯 뻔했다. 이 때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였던 쿠르트 마주어 교수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시민과 진압군 모두에게 비폭력 평화시위 보장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압에 나섰던 군경이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보장한 것은 물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89년 11월 9

제거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곧 ‘북한을 어떻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낼지’에 골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에 아주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을 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을 관리 대상으로 대하라는 말씀이다. 시청 집회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도 ‘강한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원칙을 버린다면 평화통일은 요원한 꿈이 될



한반도 평화통일의 도화선이었다고 기억하게 될 서울시청광장의 평화통일 기도성회

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평화, 그리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다. 그리고 오는 11월 4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평화통일 대구성회’는 전국적인 도화선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래서 마침내는 김일성 광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리라 믿는다.

독일 통일은 서독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아니었다. 먼저 동독의 자유화 물결이 있었고, 그 후에 이루어진 합의통일이였다. 구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1986년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이 힘입어 먼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간의 국경이 열렸고, 그 후 동독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헝가리 국경을 통해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2년

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완전 통일을 이루어지기까지 동독에는 자유선거를 통해 메지에르 총리의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이후 서독의 콜 정부와 함께 역사적인 통일을 준비했다.

독일 통일의 대역사는 많은 노력의 산물이다. 1971년 서독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으로 동서독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 사회당 진보정권의 정책은 콜 총리의 보수정권에도 일관되게 계승, 지속되었다. 동독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면 이런 통일의 역사는 있을 수 없었다.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얻을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만 대한다면, 이는 남북 모두의 재앙이 될 뿐이다.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약 달포 뒤인 1989년 12월 25일, 승전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패전국 독일의 연합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동베를린 지역에 모여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가’를 미국의 명지휘자 번스타인의 지휘로 합창했다. 20세기말 역사의 대전환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장면이었다.

이제 그 역사가 세계 마지막 분단지역인 한반도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독일의 통일과정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대로 꿈꾸는 듯한 평화통일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평화통일 대구성회

11월 4일(화) 오후 1시 대구실내체육관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12:1~6)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찌어다”(사12:5).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누차 저는 ‘아름다움이란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11:1).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말 극히 아름다운 일 이었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

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사12:3). 세상 것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갈증이 날 뿐이지만, 예수가 주신 구원의 우물은 한번 마시면 영·혼·육 모두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입니까? 사업이 잘 된 것입니까? 자식이 일류대학에 척 붙여준 것입니까? 남편이 승승장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까? 이 모두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히 아름다운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한 일입니다. 예수로 인해 당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앙꼬 없는 단팥빵처럼 맛없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이빨 빠진 사자마냥 세상 책이나 진배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모든 것이 넘쳐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고, 그 이름만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에게 쓴 편지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3~6).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그 선택은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8),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롬8:35)라는 그의 고백은 정말 환희에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영접한 것이 세상 어느 것과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일임을 인지한다면 세상 것이 조금 안 풀린다고, 좀 가진 것이 없다고, 몸이 좀 병들었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널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 만민이 구원의 우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는 말씀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를 소유했는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는 주님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전에는’과 ‘이제는’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엡2:3). 그러나 ‘전에는’과 ‘이제는’ 분기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제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구 한 바퀴를 돌며 전도하러 다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해야 합니다. 이는 꼭 입을 열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극히 아름다운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많은 자들이 당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그 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홀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2:4~5).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 분 한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시다. 또 한 입을 열어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니라”(요일4:9~10).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살리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영생을 얻었으니 이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사기 5장에도 드보라와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극히 아름다운 일,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찬양해야 할

총회장 이초석 목사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음악의 사회적 힘

선택(Choice)

베토벤(L.V. Beethoven)을 모델로 한 로맹 롤랑(Romain Rolland)의 소설 ‘장 크리스토프(Jean-Christophe)’를 TV드라마로 제작한 미니시리즈가 지난 1980년대 초 국내에서 방영된 적이 있다. 드라마 중에 나오던 한 독일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리 독일은 괴테(Goethe)와 베토벤의 나라이다!”라고 자긍심에 찬 어조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게르만의 문화적 일체감과 자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문화는 단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개인의 이야기든, 사회적 사건, 국가 간 전쟁 등 다양한 인간사의 이야기들을 글이나 예술의 다양한 장르로 기록하여 다음세대에게 결과물로 남기는 것이 곧 문화이다. 한 사회의 문화역량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문화역량이 강한 민족일수록 많은 기록물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기록의 여러 형태 중 음악이란 장르는 그 강한 감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사건 자체를 많은 사람들로 오래 기억하게 하고 추억하게 만든다.

독일이 통일되기 1년 전 즈음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이 TV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되었다. 70년 넘게 지구촌을 동서로 갈라놓았던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아성이 붕괴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영국에서 TV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소련의 반체제 음악가이자 세계적인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Ms-

tislav Rostropovich, 2007년 타계)는 독일 분열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소련 사람으로서 일종의 채무의식에 괴로워하던 차에 이 놀라운 역사적 장면을 목격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전세기를 내어 베를린(Berlin)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장벽 앞에서 바흐(J.S.Bach)의 무반주 첼로모음곡을 연주했다. 노(老)첼리스트의 애절한 연주는 통일의 기쁨은 물론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첼로 현에 녹여내며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2001년 9월 11일, 뉴욕(New York)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항공기 테러로 붕괴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전 세계가 경악한 사건이었지만, 누구보다 당시 3천여 명 희생자들의 유족들, 그리고 뉴욕 시민들이 당한 충격과 슬픔은 무엇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였다. 그런데 9.11테러 한 달 후 열린 추모식에서 시크릿 가든(Secret Garden)의 “You raise me up(당신은 날 일으켜주시네)”이 울려 퍼졌다. 수많은 나라에서 리메이크된 이 곡은 좌절과 비탄에 빠져있는 영혼들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사회적 치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음악이나 영화 등 예술가의 치열한 기록은 이처럼 사건 자체를 직면하는 사람들로 정신적인 성숙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문화역량이 강한 민족일수록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Henry Han

henry8829@naver.com

금세기 최고의 알토 성악가로 불리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앤더슨(Maria Anderson)으로 흑인입니다(1897?~1993).

그녀는 노래 하나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가를 독창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1958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명으로 유엔대표가 되기도 했고, 19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40년 간 성악가로 활동하다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잘 것 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로지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유명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인생은 B와 D사이의 C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Birth(탄생)와 Death(죽음) 그 사이의 Choice(선택)이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일생동안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크리스천은 어떤 선택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중심인 모두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두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 나간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그 장군을 선두로 시가행진을 했는데, 그때 뒤따르는 노예에게는 큰소리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한다. ‘메멘토 모리’란 라틴어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노예의 외침은 개선장군을 향해 전쟁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취해 자신을 망각하지 말 것과 더불어 오늘 전쟁에 승리했다 해도 너 역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설교 중에 여러 번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목사님 자신의 무덤을 준비해 놓으셨고, 기도원에 가실 때마다 반드시 그 앞에 가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명을 확인하신다

는 말씀을 하셨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인간으로서 진정한 겸허함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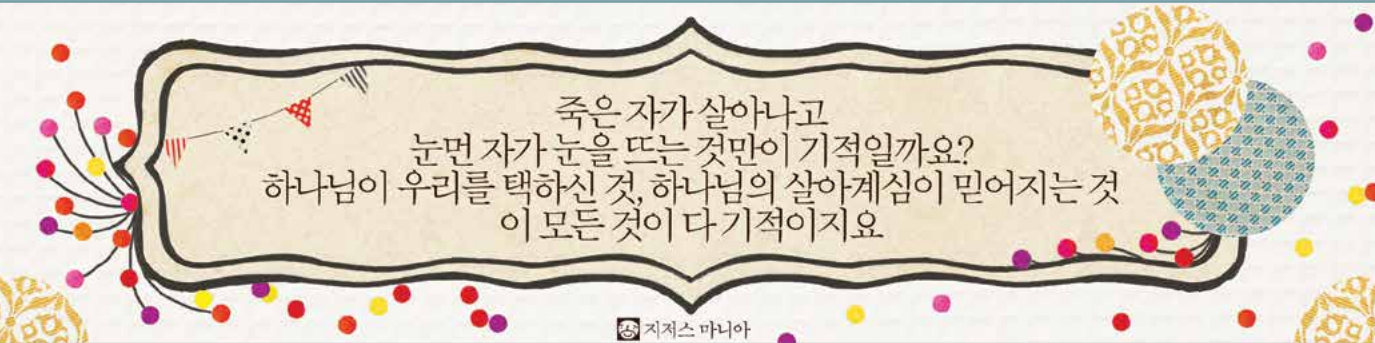
성경은 곳곳에 인간의 죽음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백삼십년의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을 통해 아홉은 인생의 고달픔을 표현했고, 예수님께 인정받던 가롯 유다는 자신의 영혼까지 영영한 죽음의 길에 처하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예수님과 한 날에 사형집행을 받았던 두 강도의 죽음은 죄인의 모습은 같았으나 완악한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의 차이로 영벌과 영생을 받는 차이를 보여준다. 날마다 자신을 처서 죽음의 자리에 두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단두대에 목 베임 받는 순교의 길을 갔다.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 사형장 계단을 세 번 툴 때 잘린 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예수, 예수” 하고 외쳤다고 한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깨달아 죽음 뒤에 세상을 지금의 삶으로 고백하는 자는 많지 않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사랑의 고백을 드릴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자답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2).

하서연 전도사

ohzion1004@daum.net





귀를 기울이세요

2009년 한 해 매출이 14조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은 5조를 돌파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회사 닌텐도는 최근 4년 연속 영업이익자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재기불능’이라는 비판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의 중심이 스마트폰으로 급속도로 이동하는 데도 기존 휴대용 게임기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차지했던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는 2007년 6월 애플이 아이폰을 최초로 선보였을 때, “우리가 정한 것이 표준”이라며 다가오는 스마트폰 시대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9월 마이크로소프트에 휴대전화 사업부를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1980~90년대 고품질의 브라운관 TV와 휴대용 음악재생기기 ‘워크맨’으로 세계 IT가전의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일본의 소니는, 2000년대 이후 삼성전자의 디지털 TV와 애플의 MP3플레이어 ‘아이팟’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사례는 일류 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언젠가 날개 없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더욱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미리 미리 튼튼한 날개를 ‘준비’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세상도 인정하는 크리스천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고 하지요. 밝고 예의바른 아이를 보면 부모가 좋은 사람일 것 같고, 욕을 잘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집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불임성 좋은 아이를 보면 부모도 낙살이 좋을 것 같고, 버릇없는 아이를 보면 그 부모에 그 아이겠거니 하게 되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식의 행동은 부모의 얼굴이지요. 이것은 세상 부모자식 간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 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크리스천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늠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는 정치인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 사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기독교,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되지요. 반대로 성실하고 매사 귀감이 되는 크리스천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하고 마음을 열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할 수도, 빛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가시 돋는 말로 항변하기 일쑤였습니다. 누군가 진화론을 주장하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조목조목 반대했었지요. 그래야 이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로는 그들의 생각을 조금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게 할 뿐이었지요. 제 마음 또한 시원한 게 아니라 찝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디도서 3장 9절을 찾아주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이 될 만한 이야기는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바울의 말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져야 할 지혜를 가르쳐주었지요.

이제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편견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요. 그것은 말이나 변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크리스천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바른 행동을 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책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의 영혼에는 참 평안과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분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형집행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수많은 명작을 남기며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분은 2000여 년 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장사

는 것, 그 일상에 있다는 것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 험담을 피해야 하는 이유,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 없는 중에도 베풀어야 하는 이유,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하는 이유, 양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다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이상, 우리의 행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천을 넘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다름 아닌 우리 크리스천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혹은 직장 상사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교회 친구뿐만 아니라 세상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나와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한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은 뒤의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요삼2절).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혼자서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반자가 되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상희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사랑의 법!

이른 아침 조용하던 성전이 갑자기 시끄러워지면서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끌려옵니다. 다들 큰소리로 한마디씩 합니다. "죽여라! 죽여! 죽여 마땅하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죽이라는 겁니다(요8:1~11).

모두가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목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예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한참을 가만 계시다가 기다리고 있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 대신 무언가를 땅바닥에 쓰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 여자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이 세상을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의 의를 외치는 군중보다 죄악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공의만을 붙들고 외칠 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법, 긍휼을 외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간음한 이 여인!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죄인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공의와 도덕이 아닌 사랑의 법을 배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 여인은 결국 그 용서와 사랑의 법에 변화되어 일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범죄를 용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롬3:23)과 아무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마7:1~5)을 깨달아 사랑의 법을 행하라는 교훈적 말씀입니다.

Good News

'죄와 벌'의 작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폭군이었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농노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가 좋아하던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밑바닥 생활을 하며 자랐지만 그의 젊은 날의 삶도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회주의운동에 뛰어 들었다가 반체제인사로 체포되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를 싣고 가던 열차가 작은 간이역에 멈추었을 때, 이름 모를 여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건네받았습니다. 사형집행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책

배우가 되고 싶은 아이

::Edu Section::

지난 10월 초, 영화의 축제가 열리는 부산 국제 영화제(BIFF)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만난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아이는 맑은 눈을 빛내며 "선생님, 저는 장래의 꿈이 배우입니다."라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래?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라고 질문을 던져 보았다. 그 아이, 멋진 꿈을 이야기할 때와는 달리,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리고 만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배우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지금의 학생 신분으로 살아가는 시절은 잠깐이란단. 그 짧은 시간 동안 너의 꿈을 위해 해야 할 것은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네 꿈을 위해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배우가 꿈인 지금의 너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다."

라며 그 아이에게 학업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각 대학의 신입학 면접고사 예상 질문지를 들고 온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소개서와 면접에서 진로와 적성을 묻는 질문에 답을 못 쓰고 있다. 참으로 그 모습이 안타깝다.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막연한 꿈이 아니라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미래의 확고한 '나'의 모습을 설정했다면, 그 '나'를 만나고 이루기 위해서 또렷하고 섬세하고 면밀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세워야 한다. 말 많은, 말 뿐인 이 세상에서 행동의 실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자신이 계획

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모를 눈물도 흘려야하고,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야 한다.

백 개의 계단을 오르면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백번의 시작인 첫걸음을 잘 내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오를 때마다 격려와 끊임없는 격렷으로 백번의 계단을 끝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자식의 예쁘고 자랑스러운 지금의 모습이 결코 미래의 멋진 모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려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들 또한 자녀와 동행하는 발걸음에 힘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진주는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감정이다
진주는 남보다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고린도전서 3장 3절)